

※ 모스크바의 부흥, 민족의 통일과 제국 형성의 시작

I.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

=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는 대리통치, 현물지배, 경제수취, 문화무시 등의 기본적인 성격을 띤다.

- 노브고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국 모두를 지배하기 시작한¹⁾ 몽고(보다 정확하게는 사라이의 킵차크 한국)는 동슬라브 전체를 대표하는 공후 한 명을 지정해 그에게 신임장을 주어 동슬라브 땅 전체를 다스리게 했다.

- 세금, 행정, 우편 체제 등에서 몽고(타타르)가 동슬라브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나, 오늘날은 배격되는 입장이다.

- 무엇보다, 몽고(타타르)는, 놀라웁게도, 동슬라브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몽고인들 자신들은 원시종교, 샤머니즘 등을 믿고 있었으며, 타타르인들은 이후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해갔지만 동슬라브인들의 종교적 향수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 동슬라브인들은 처음 몽고의 침략과 몽고-타타르인들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божья кара)로 이해했다. 즉, 키예프 루시 시대, 영광스런 조상들의 위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공후들간의 내분을 일삼으며 외적의 침입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신도 믿지않는”(безбожные) 타타르(‘지옥’이라는 뜻과 통합)인들을 내려 주셨고, 또 지금의 자신들의 고통이 그 죄에 대한 시련이라고 생각했다. ...

- 그러했기에 동슬라브인들은, 이미 성을 비롯한 물리적 삶의 토대가 모두 불타고 파괴되었기도 했었고, 타타르 지배 초기, 타타르인들의 간섭과 위협이 없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수도원(монастыр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차 그런 경향이 확산되면서 수도원은 동슬라브인들에게 피난처이자 집, 병원, 예배소, 시장, 식당, 학교, 공작소, 광장, 구둣방, 포목점, 시장, 성상화제작소 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즉, 수도원이 생활이 터전이 되기 시작했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영위되기 시작했다.

- 이처럼 수도원이라는 종교적 장소가 성직자 뿐 아닌 세속인들의 물질적 삶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는 현상은 분명 러시아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도원 중심의 집합적 (종교)생활을 통해 동슬라브인들 특유의 공동체성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도 이끌어졌다.

- 한편, 이러한 공동체성에 대해 문화사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 루시 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게 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 거대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다름아닌 짜르가 되고 말이다.

- 하여튼, 몽고-타타르 지배 초기 시기, 절파된 모든 동슬라브 삶의 물리적,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의 출발과 구심점은 다름아닌 수도원이라는 물질적, 은유적 공간이었다.

= 또 다른 중요한 논점으로, 타타르의 지배가 동슬라브인들의 당대적 삶뿐만 아니라 후대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껏 여러 논의가 분분하다.

1) 나중 14세기 후반부 무렵인 1370년 경, 키예프와 갈리취, 볼로인 등의 남서부 동슬라브는 리투아니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다.

2. 동슬라브 사회에서 타타르 지배의 영향

; "러시아인의 얼굴을 굽어 벗겨 보라, 그러면 타타르인의 낯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나폴레옹) vs "타타르 굴레의 그림자를 지워보라, 그러면 러시아인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Leroy-Beaulieu, 1889).

3. 몽고의 서유럽 원정에서 동슬라브가 지닌 의미

; 몽고 세력의 서유럽 진입에 있어 일종의 "방과제"의 역할(Д. С. Лихачёв)

- 미지의 강력한 적으로 그 파괴력과 잔혹함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몽고의 침입을 동슬라브가 '몸'으로 저지

- 폴란드, 헝가리부터 신성로마제국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문명과 문화를 몽고로부터 동슬라브가 지켜냄

- 역으로, 동슬라브는 타타르(+ 리투아니아)로 인해 흑해와 서유럽으로의 진출로가 모두 막혀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동슬라브 사회와 문화에 있어 본원적인 특징인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 중세 유럽의 퇴장을 촉발하며 등장한 근대의 첫 국면과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차단 되었다는 점이다.

= 동슬라브(러시아)는 자신들의 몸으로 몽고의 칼과 화살로부터 서유럽을 지켜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은 타타르의 지배하에 서유럽의 정신적 각성과 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점진적 탈피를 역행하는 종교적 회귀와 근본주의로 소급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후 경험하면서 아주 긴 중세(中世)를 겪어나가게 된다.

4. 동슬라브의 분리와 오랜 절연

; 블라디미르, 수즈달 공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 지역과 남서부의 키예프와 갈리취, 볼르인, 그리고 폴로츠크 등 주변 지역의 분리와 오랜 절연. 동슬라브인들의 동질성, 내부적 통일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

- 12세기 후반, 키예프의 쇠락과 함께 찾아온 주변주의 부상은 키예프 루시 남서부인 갈리취와 볼르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이 지역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중세 헝가리 왕국과 독자적 교류를 통해 일찍부터 문화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 13세기 초, 정력적인 공후를 맞이하며 갈리취와 볼르인 공국은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으나, 키예프 루시로의 몽고-타타르 침략 이후 이들 역시 쇠퇴하기 시작했다.

- 한편, 발트해 연안의 발트민족들도 13세기 초부터 서서히 자신들의 부족적 정체성을 대외관계속에서 적극적으로 발견, 구현해나가기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1240년, 지금의 리투아니아 민족의 조상들은 최초로 정치적으로 통합세력을 형성했으며, 잠시 분열을 겪기도 했으나, 13세기 맨 마지막 무렵, 다시금 통합을 이루게 된다.

- 이후 이들이 진격할 곳은 다름아닌 동슬라브인들의 영토였다. 키예프, 갈리취, 볼르인, 프스코프, 스몰렌스크 등으로 진격한 이들은 저항력이 극도로 약화된 동슬라브인들 속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팽창해 들어올 수 있었다. 모스크바까지 넘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세 번의 싸움에서 리투아니아는 모두 물러섰다.

- 동슬라브인들의 영토 중 드네프르 강 서쪽의 넓은 영토를 접수한 리투아니아는, 타타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문화적 관용책을 기반으로 동슬라브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사실, 리투아니아 역시 타타르와 마찬가지로 동슬라브보다 열악한 종교적, 문화적 수준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들 역시 이른바 '하부통치'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 이렇게 슬그머니, 느슨하게 점령(?)된 드네프르강 서쪽의 동슬라브(루시-우크라이나「Русь-Украина」, 루시-벨라루시「Русь-Белорусь」)는 이후 리투아니아가 막강한 근대 초기 폴란드 왕국에 포함되면서 자연히 서부 동슬라브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북동부 동슬라브와 정치적으로 요원해지기만 했다.
-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폴란드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 (대)공국의 세력 다툼에서 17세기 이후 모스크바가 조금씩 점진적 승리를 거둬에 따라 부분적으로 모스크바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키예프 같은 경우 1667년에야 겨우 모스크바와 다시 결합되었다.
- 이처럼 동슬라브인들의 균질적, 내부 통합적 결합성은 몽고-타타르의 침략으로 인해 사실상 동과 서로 나뉘어진 셈이 되었으며, 이는 i)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시로의 동슬라브의 분할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계기가 되었으며, ii)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있어 ‘동’과 ‘서’의 내재적 분열을 지각케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며, iii) 몽고-타타르의 지배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극성으로 분리되는 러시아(동슬라브)의 자기분열의 시초가 되는 셈이다.

5. 동슬라브인들의 종교성, 공동체성 강화

; 몽고인의 침입을 신의 징벌로, 이러한 시련 극복 과정의 중심을 수도원이 맡음. 또한 이후 이러한 자신들의 경향을 물리적으로 징표화, 증명, 예시를 간구하는 ‘기도행위’가 성상화와 교회건축 등에서 아주 활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6. 동슬라브 역사에 있어 “지리적 정신분열”의 시초

- 동양적 몽고와 타타르의 침략, 그리고 200년이 지배는 이후 러시아 역사와 철학에 있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되돌려받게끔 하는 존재론적 시작이 되는 셈이며,
- 또한 현격하게 상이한 두 문명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삶이 이루어져 왔다는 ‘접이성’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자각이 양 극단을 오가는 진자성을 강화시켜온 것 또한 사실이다.
- 양가성 사이에서의 정체성 규명의 고민이 러시아 민족만이 받아든 시험지는 아니나(터키, 핀란드 등), 존재론적 불확실성의 기반을 이만큼 강력하게 제시하는 지리적 분열증은 그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지리적 정신분열증(Geographic Schizophrenia)은 분명, 커다란 특징이다.

II. 몽고-타타르의 속박 이후 동슬라브 모스크바 공국의 문화적 부흥

1. 따따르 지배 시기 동슬라브의 문화적 상황

- 비록 몽고-따따르가 1240년부터 공식적으로 지배가 종료된 1480년까지 종교적 관용책을 썼다고는 하나 그들의 침략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키예프를 중심으로 13세기 초까지 찬란한 그리스도교 문화를 이룬 동슬라브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상실이 컸음.

- 무차별적인 파괴 속에 건축물, 문화재, 문서 등의 유형적 피해뿐 아니라 문화 전수를 담당할 식자, 장인, 예술가들의 소멸까지 무형적 차원에서의 일실(逸失) 역시 엄청났음.
- 이러던 찰나 1380년, 모스크바의 공후 드미트리와 세르게이 라도네쭈스키의 축원 아래 벌어진 콜리코보 벌판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몽고-타타르 불패신화가 깨지면서 동슬라브인들에게선 몽고-타타르와 차별되는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갖고 싶다는 내적 욕구가 점증함.

2. 동슬라브의 문화적 '부흥기' 진입과 자발적으로 남슬라브를 수용

- 140여년에 이르는 이민족의 정치적 지배하에 피로함과 이질감을 느끼던 동슬라브인들은 이 억압된 체제 종식의 가능성을 콜리코보 전투의 승전으로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원형이자 풍요로운 정신적 고향, 그리고 정치적 이상향으로 끼예프 루시 시대의 전성기를 떠올렸다. 11세기 초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블라디미르 대공 때와 여러 공후들이 정치적으로 단합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융성했던 야로슬라프 현제 치세를 모스크바 공국의 동슬라브인들은 자신들이 구현해야 할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 그러나 현실에 있어 모스크바 공국의 동슬라브인들에게 남아 있는 유산은 거의 없었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걸맞는 문화적 성취를 내세울 기반이 없었다.
- 이에, 동슬라브인들은 다시한번 비잔틴과 남슬라브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 10세기 말, 비잔티움 제국을 통한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남슬라브계 학자들을 통한 문자와 문학, 지적 유산의 전파를 통해 동슬라브가 개화되었듯이(제1차 남슬라브 영향),
-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동슬라브는 **또 다시** 남슬라브의 문화적 전통과 학자들을 통해 키예프 루시부터 모스크바 공국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의 영속성을 확인받으려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로 "제2차 남슬라브 영향"이라고 한다.
- 이러한 정신사적, 문화적 전통의 계승을 주장했던 배경에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북동부 세력이 동슬라브의 핵심인 끼예프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정치적 적자임을 표방하려 했음과 무관하지 않다.
- 간략 정리를 하자면, i) 이민족의 속박을 종식시키며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끼예프 시대의 문화적 영광을 재현코자 갈망했고, ii) 동슬라브인들에게 중세 유럽의 문자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로의 길을 연 키예프 루시는 비잔티움과 주변 슬라브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던 만큼, iii) 몽고-따타르 지배기 동안 단절된 키예프 루시의 영광을 재생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키예프 루시가 걸었던 길-비잔티움과 다른 슬라브 문화와의 직접적 교류-을 반복하는 방법이 자/발/적으로 선택된 셈이다.
- 즉, 모스크바 공국으로선 영광스러운 민족적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정치적 의도 계재), 이민족 지배를 받았던 치욕스런 오늘을 전복하는 가장 선명한 기제로서 과거의 종교적 영성을 되살리려 했음 역시 주목할 점이다.
- 결론짓자면, 제2차 남슬라브 영향은 몽고-타타르 침탈기 동안 '오염된' 동슬라브 문화를 최초의 '순수한' 상태로 복원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동슬라브의 문화적 부흥에 대한 독자적 해석 - 전(前)르네상스

- 한편, 14세기 말 모스크바 공국의 이러한 영광스런 과거의 전통과 직접 맞닿으려는 시대적 분위기는 비슷한 시기 진행되었던 서유럽의 르네상스를 많은 면에서 떠올리게 한다.
- 서구의 문예부흥이 찬란했던 고전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에 대한 회고를 통해 사적 이전 시기-그리스도교의 중세-를 뛰어넘어 영형(榮炯)한 인문 문화로의 부활을 꾀했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의 모스크바 공국 또한 몽고-타타르 지배기를 뛰어넘어 찬란했던 끼예프 루

- 시 시대의 문화로의 직접적인 접촉과 재생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 즉, 두 시기 모두 이전 시대로의 복귀를 통해 문화적 부흥을 꾀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그러나 이 시기의 동슬라브 문화가 서유럽의 르네상스의 개별적 경향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전반을 인문주의적 세계의 도래, 그리스도교적 중세문화의 세속화라는 특질로 정의되는 서유럽의 르네상스와 동질하다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무엇보다도 동슬라브의 이때 문화는 그리스도교적 문화의 세속화라는 르네상스적 과제가 아닌 찬란한 그리스도교 문화 자체로의 2차적 회귀라는 과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런 맥락에서, 소비에트 시기의 학자들은 만약 인문주의로의 경도라는 경향이 르네상스 시기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자질이라면, 14세기 말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동슬라브의 이 문화는 이후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교회의 세속화와 개성의 출현이라는 경향이 시 발된 먼 시원이라는 점에서 전(前)르네상스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왔다.

4. 모스크바 공국의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부활로서의 이론화

- 안드레이 루블료프(Андрей Рублев; 1370-1430)의 성화와 그의 대표작 삼위일체(Троица; 1411) 가 아마 이 시기를 극명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모스크바-제3로마” 이론과 민족주의적 구심과 제국주의적 팽창

1. “모스크바 - 제3로마”(Москва-Третий Рим)

- 말 그대로,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다’는 뜻으로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천년왕국설(다니엘서 7장)과 종말론(요한묵시록 20장)의 변형이다.²⁾ 핵심은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한 동슬라브인들의 민족적(모스크바) 자부심과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라 자부하는 정교세력의 마지막, 핵심으로 남았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의 표현이다. 나아가, 통치층은 이 이념을 일종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적용해 내부의 결속과 외부로의 팽창에 있어 정당화의 논리로 적극 끌어들이었다.

- “첫 두 로마는 무너지고, 세 번째 로마인 모스크바가 영원하고 네 번째는 없을 것이다”라는 글귀가 직접 적혀있는 프스코프 지방 주교인 필로페이의 서한에서 유래한 이 사상은, 모스크바-제3로마 이론을 통해 동슬라브의 영토가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동슬라브 민족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고, 대외적으로는 독립국의 긍지와 명분을 확보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황제의 권위를 성서적 기반에서 -서유럽의 로마가톨릭 제국으로부터가 아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모스크바의 절대우위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되었고 이는 이 서한이 쓰여진 1510-20년 무렵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을 거쳐 오며 군주에게는 무력 외교와 폭정을 합리화시키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민중에게는 동슬라브적 특유의 선민사상을 배태시켰다. - 어찌되었건, 몽고-타타르의 지배를 자력으로 물리치고 극복해낸 점, 자신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던 비잔티움의 투르크 이교도에 의한 몰락 등을 지켜보며 새로이 성장, 팽창해나가는 정치적 야욕을 뒷받침할 만한 이보다, 모스크바-제3로마보다 더 훌륭한 민족적, 종교적 지지대는 없었다.

2) 15세기 말 - 16세기 초 러시아에 갓 알려진 구약의 에스라Ezra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에스라가 꿈에 12개의 날개와 3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를 보았는데 한 천사가, 세 머리는 지상을 차례로 지배할 왕국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다니엘의 네 짐승 중 마지막 짐승이라고 했다. 이 세 번째 머리가 모스크바로 당시 동슬라브에서는 받아들여졌다.

- 정리하면, 로마는 영원하다는 제국의 논리와 그 영원성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적 힘으로서 기독교 신앙, 또한 로마(=>모스크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군주사상, **올바른 신앙(!)**의 유지 여부에 따라 그 세계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제국의 전이사상(종교와 정치의 일체감)**, 그리고 지금은 그 중심이 모스크바라는 **모스크바의 세계사적 위치의 역설** 등을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모스크바-제3로마 이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마지막과 관련해서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동슬라브가 서유럽 문명의 세계사에 편입하고자 했던 강렬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 이후 후자는 러시아 민중, 사회를 지탱해온 버팀목으로서 모스크바-제3로마이론으로부터 비롯한 러시아적 메시아니즘(선민주의)의 사명감, 우월감의 순기능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스크바를 새로운 예루살렘, 최후의 지상왕국으로 이끌기 위한 동슬라브인들의 의지와 노력은 수난과 극기의 자기비움과 겸양으로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가 구원의 선봉에 서 있다는 생각은 수세기동안 동슬라브인들, 러시아인들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조국은 신의 선택을 받은 지상의 마지막 왕국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인의 거룩한 소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2. 이반 4세(1530-1547-1584) 치세의 모스크바 대공국의 정치적 확장

- 주변 모든 타민족 국가들과의 군사적 충돌
- 시베리아 진출, 개척.

3. 제국의 정치적 팽창의 문화적 기념비로서의 성 바실리 사원(1555-60)

- 붉은 광장에 서 있는 동슬라브, 러시아적 건축의 상징.
- 타타르의 본거지 중의 하나인 까잔 지역을 점령(1505)한 기념으로 세운 사원
- 비잔티움과 슬라브, 이교도적 색채 혼합의 절정
-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과 모순, 극단적인 민족성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허용과 강조는 어찌보면 이후의 진정한 혼합문화의 제국적 색채를 알리는 전조일수도...